

자료의 광맥 찾는 우리문학의 고고학

「韓國古典文學新資料研究」 펴낸 박효순교수

‘발로 뛰어’ 발굴한 한국고전문학 자료들을 연구하여 학계에 소개하는 일을 자신의 ‘학문의業’으로 삼은 박효순(65, 올해 한남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직 정년퇴임)한남대학교 박물관장의 ‘숨은 업적’들이 한 권의 책 「韓國古典文學新資料研究」(한남대학교 출판부)에 묶여져 출간되었다.

이 책은 「韓國詩歌의 新照明」(담구당, 1984년)과 「玉所 權燮의 詩歌研究」(담구당, 1987)에 이은 저자의 세번째 저서로 우리의 고전문학사를 통시적인 맥락에서 볼 때 깊은 단절과 너른 공백의 부분을 많이 메꾸어 주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업적이라고 이야기된다. 수록된 작가와 작품 들은 국문학사상 새롭게 그 주거지를 마련해주어야 할 향기로운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타의 연구자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각각 ‘한국 문화와 문학의 만인보’인 한국정신문화원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조동일 저 「한국문학통사」에서도 거의 소개가 안되어 있거나 아예 안되어 있을 만큼 그녀의 연구는 독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로 뛰어 발굴해낸 ‘숨은 업적들’

「한국고전문학 신자료연구」는 2편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목적은 “시간적 순서나 유형체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엮”은 것인데 “그것은 저자의 자료정리 형편 때문”이라고 머리말인 ‘序’ 밝혀져 있다.

제1편 제1장은 ‘具康과 그의 詩歌’. 구강은 정초 초로부터 순조 말까지의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한 사대부로 歌辭集의 표제인 동시에 가사작품 제목이기도 한 「北塞曲」을 남긴 인물. 박교수가 관여하고 있던 향토연구회의 한 회원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던 후손으로부터 先代遺稿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햇빛을 보게 된 「북새곡」은 총 2000句에 가까운 장편기행가사인데 그 제작시기가 전통 양반시가의 맥이 끊긴 시점에 놓인 것으로 고증되었다. 그리하여 시조의 경우는 李世輔의 유고가 발견됨으로써 전통시사의 맥을 살피는데 햇빛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강의 가사집 「북새곡」의 발견은 가사전통의 맥을 짚을 수 있는 큰 햇빛을 얻은 것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특히 암행어사 신분으로 북풍 한설 속에 함경도 산간오지를 넘어 고을마다 다니며 보고 느낀 바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대의식과 언어로 그려내 생생한 현장감과 감동이 독자의 심금을 울린다”고 박교수는 평가했다.

제2장 ‘三宜堂과 그의 詩’에서는 조선시대의 지엄했던 사회규범 속에서 典範의인 여인의 삶과 문학의 길을 어렵게 병행시켜 나간 삼의당의 작품세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삼의당의 유고는 1931년에 간행된 바 있고 1950년 「朝鮮歷代女流文集」(을유문화사)에 재수록되어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작품보다는 ‘소설 같았던 생애’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삼의당의 작품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연구의 위치를 점하는 논문이다. 삼의당은 18세에 同年 同月 同日 同里에서 출생한 남자와 결혼했으며 머리를 자르고 비녀를 팔아가며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등 무수한 일화를 남겼으며 세계적으로 드문 ‘夫婦詩碑’가 진안 마이산에 세워짐으로써 죽은 뒤에도 일화를 하나 더 첨가한 여인. 문학적으로도 조선시대 양반계층의 시로서는 경이적이며 파격적인 ‘애정시’를 남겼다는 점에서 또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과거 공부를 위해 집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은 작품 하나를 예로 들자면,

相思苦, /相思苦/鶴三窓, /夜五鼓/脉脉無眼
對鴛鴦/淚如雨/淚如雨

(괴로워 괴로워/그리움에 괴로워/닭은
三 ㅅㅅ 울고/밤은 깊어 五鼓를 치는데/잠을
못이뤄 원앙금만 빗겨보니/눈물이 쏟아지네
/비오듯 눈물이 쏟아지네).

제3장 ‘浩然公와 그의 文學遺產’ 역시 박효순교수가 한 고택의 고문헌들을 살피다가 발견한 작품집을 연구한 것. 이조시대 여류시인 하면 흔히 황진이, 梅窓, 雲楚, 玉峰, 只在堂 등 기녀들인데 호연계는 삼의당과 더불어 양가집 여인이라는 출신성분 외에 國喪, 靑龍刀 등 여타 여류시들이 다루지 못한 주제를 형상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받고 있다. 제4장 ‘尹善道와 그의 詩歌’에서는 총 75수의 시조를 남긴 윤선도의 시 인식 저변을 체질, 작품적 경향, 주제의식의 표출방식, 문학의식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관하고 있다. 현재 전하고 있는 그의 유고들 중 한시 작품들은 제쳐두고 국문 시작품들이 일 점 오차없는 자필의 필서본이며 그것을 裝冊하여 비단표지를 했고, 그 제책된 시집을 다시 비단주머니에 넣어 보관했다는 점을 들어 고산의 국문시가에 대한 관심도와 보존의식의 남다른 추를 추출해내는 부

발로 뛰어 찾아낸 한국고전문학 자료들을 연구하여 학계에 소개하는 일을 ‘학문의 업’으로 삼아온 박효순교수의 한국고전문학신자료연구는 통시적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문학사의 단절과 공백을 상당부분 메꾸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소중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박효순교수.

분은 박효순교수의 실증적 학문 연구 기풍이 물씬 배어져나오는 곳.

제5장 ‘徐載克의 五倫歌’와 제6장 ‘歌辭慶州觀覽記’는 20세기 중반에 씌어진 가사가 소개되어 있다. 崔康賢이 정리한 「가사일람표」를 재인용하자면, 현전하는 가사는 총 1580편이며 그중 1900년에서 1945년까지 이루어진 작품 수는 417편, 1945년 이후에 이루어진 작품 수는 54편이라 한다. 또한 「가사 경주관람기」의 서론에는 국문학사상 기행류 작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멀리 신라시대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고려시대 임춘의 「東行記」, 이규보의 「南行月日記」, 李曲의 「東遊記」, 권근의 「奉使錄」, 조선시대에는 가사 형식과 접맥되어 나타난 白先弘의 「관서별곡」, 정철의 「관동별곡」, 권섭의 「寧三別曲」,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홍순학의 「연행가」등을 주요한 맥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7장 「如僧歌辭」에서는 最古의 가사작품을 쓴 나옹화상(1320~1376) 이후 불교와 가사의 접맥상황이 서산대사 등으로 이어져 풍성한 불교가사가 현전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러나 불교가사와는 매우 변별되는 내용을 지닌 여승가사들에 대하여는 따로 구명된 바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승가사의 내용적 성격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현전 여승가사의 거개가 작자미상이므로 작품내용으로 보아 작자가 여승이거나 여승을 주체 또는 대상으로 삼

은 작품을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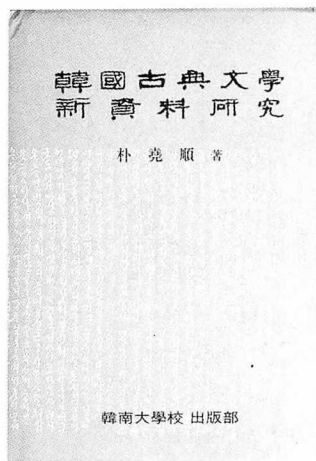
박교수는 여승가사의 내용을 ‘애정류’와 ‘인생무상 탄식류’로 분류한다. 애정류들은 일반 불교가사에서 볼 수 있는 구도 내지 설교적 지향성이 보이지 않고 일반가사보다도 오히려 농도 짙은 ‘남녀상열지사’를 표현한 것이 대부분. 「送女僧歌」(143句)는 여승을 ‘세속적 차원’의 애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남성의 고뇌와 고백이 표현된 작품. 「僧答辭」(82句)는 밖에서 남정네를 만나고 불당에 돌아와서 그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여승의 작품. 「再送女僧歌」(90句)는 한 남자가 속세의 부귀영화와 산사생활의 「고사리 삼죽나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충동적 방법’으로 여승의 환속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마도 이내병은 살아날 길 전혀없다 차라리 다 떨치고 범나비 되어서 禪師님 간데마다 다라가며 안디리라 殺人者 死라 하니 죽으면 네 알리라”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목숨 걸고 여승을 환속시켜 아내로 소유해 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작품. 「女僧再答歌」는 한 남자의 연정에 끌려서 기어 승려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내용. 이와 반대로 인생무상 탄식류의 작품들은 세속적인 불행을 딛고 佛門에 귀의하여 안정을 얻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듯 이조후기 여승가사에서 파격적 애정류 작품들이 생산되는 배경을 박교수는 “근대화의 변혁과정에서 일어난 가치관의 변화, 생활의식의 변화 속에 일어

난 여러 풍조들이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한다.

제8장 ‘한국문학에 나타난 자연관’에서는 한국전통문학 속에 나타난 자연관을 탐미적, 경의적, 교훈적 자연관과 친화적 등 네 갈래로 나누어 고찰한 뒤 현대문학 속에서의 변모 양상을 살피고 있는데 이동순의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와 김광규의 「인왕산」, 「고향」 등의 작품을 예시하며 오늘날 과학을 표방한 인간들의 횡포 앞에 병들고 시들어가고 있는 자연과 그 자연 속에서 병들고 시들어가는 인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읽히고 있다. 제9장 ‘歌辭傳統의 現代的 發現狀’에서는 1988년에 간행된 李必喜의 가사집 「칠십년 회상록」과 1971년 李中錫이 쓴 기행가사 「濟州行記」를 고찰하여 가사장르가 아직까지는 ‘박제’나 ‘화석’만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제2편 제1장은 ‘한글본 丁香傳’.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소설 「정향전」은 그동안 학계에서 신자료로 수차 거론된 바 있으나 모두 한문본이고 ‘신자료 소개’ 형식의 글들이어서 작품 내용이나 개요만이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저자가 소장하고 있던 한글본 「정향전」의 영인 공개와 그 작품적 성격과 가치에 대한 고찰은 학계에 질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연구 결과 “「정향전」의 원본 문제는 좀더 많은 異本 자료들을 발굴하여 대비연구해 보아야 되겠지만, 현재의 이본만 가지고 대비해 본다면, 원본은 한글본이 아니었다는 판단된다. 그 까닭은, 한문본들의 表記體로 볼 때 그 차이점은 한글본 漢譯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맺은 부분은 문외한은 한글본 「정향전」의 자료전 가치의 소중함에 대해 수긍케 한다.

제2장 ‘仁顯王后傳’은 미발표 異本을 중심으로 연구된 논문. 주지하다시피 「인현왕후전」은 「한중록」, 「계축일기」와 더불어 궁중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 일찍이 가람 이병기 선생이 “계축일기는 한중록과 인현왕후전과 같은 궁중의 秘事라 옛날 같으면 민간에 퍼질 수 없다. 비록 누가 안다 하더라도 아는 척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왕궁 밖에도 이 기록이 없었고 혹 척신 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극히 秘藏하던 것이다”라고 언급한 이후 위 세 작품들은 작자나 독자계층 성격마저도 완전 동류의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박교수가 그간 학계에 알려진 수준의 「인현왕후전」 외에 직접 소장하고 있던 2종의



異本을 대비연구한 결과 기존의 정설이 부정될 만한 몇 가지 사실들이 밝혀졌다. 첫째, 작품성격의 측면에서 “「계축일기」와 「한중록」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데 비하여, 「인현왕후전」은 객체적 입장에서 서술된 완전한 한 편의 소설이라는 점”. 둘째, 작품 유포상황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현왕후전」은 숙종이 인현왕후의 덕을 기리기 위해 민간에 장려한 결과 여러 판본이 생겨난 것이므로 일부 제한된 사람만이 읽을 수 있었던 궁중비사가 아니라 널리 유포되어 읽혔던 소설이라는 점 등등이다.

제3장 ‘閨恨錄’은 시조시인 고산 윤선도의 古家인 전남 해남군 연동에 있는 해남 윤씨 종가에 비장되어 오던 작품의 연구. “지금까지의 조선시대 여인의 산문작품이란 「계축일기」, 「한중록」 등 궁궐 안의 숨은 얘기를 다룬 것들 뿐이었지만 이 「규한록」은 조선 사대부가에 문헌 복장에 절한 사연들을 직접 여성의 손으로 파헤쳐 그 인정과 풍속과 착잡한 생활 실태를 생생하게 보여준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 자필원고를 보면 퇴고부분이 예순 한 군데가 될 만큼 작가의 예술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며, 고전산문으로는 희귀한 고백체 수기이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종류의 작품들이 아직 발견된 바 없어 유일한, 기념비적 존재라고 이야기된다. 문학적으로는, 작품의 주제인 ‘여인의 한’이 계획적인 구성과 명석한 이지적 판단으로 처리된, 바로 근대소설에 육박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소설”이라고 박교수는 말한다.

제4장 ‘孤山의 諺簡札’과 제5장 ‘明成皇后 諺簡札’은 각각 윤선도와 민비의 친필 편지글 연구. 앞것은 사대부의 언간찰문으로는 유례 없이 長文의 것으로 이조 서간문 형식을 파악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뒤것은 궁중용어의 변천과 어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외롭고 힘들지만 보람찬 작업”

박요순교수의 많은 발굴자료와 그 연구들 중에 가장 탁월한 성과로 지목되는 것은 두번째 저서로 묶여진 「옥소 권섭의 시가연구」. 권섭은 바야흐로 우리 시문학사상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와 함께 ‘3대 시인’의 월계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저작에 의해 권섭을 알게 되어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는 소장학자들은 박교수가 평가한 권섭의 문학사적 위치보다 더 높은 평점을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주의자’이자, 최고는 아닐지라도 일급의 ‘낭만주의자’ ‘자유주의자’인 권섭은 시조 75수, 가사 2편, 수천편의 한시를 남기고 있다.

이 책의 머리말에는 귀중한 자료를 발견했을 때의 보람과 그 과정의 외로움 등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좀 길지만, 많은 부분 그대로 옮겨보면,

“시인 권섭 및 그의 시가작품 유산은 근래까지 우리 국문학계에 전연 알려진 바 없었습니다. 저자가, 그의 후손대 궤 속에 깊숙이 묻혀 있던 친필유고 1책을 발견하게 된 것은 지난 1971년 초봄이었습니다. 이래 저자는 계속 그의 남은 유고와 방계자료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새로운 광택에 첫 삼을 내린다는 것은 가슴 설레이는 작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비록 유고들이 먼지에 묻혀 낡고 혈얼을 망정, 새로운 유고들을 수집하고 한장한장 넘기는 동안, 그 주옥같은 작품들에 경이와 환희가 교차되어 가슴벅찼습니다. 이 귀중한 국문학 유산을 이어받게 된 기쁨이 어찌 저자만의 것이겠습니까! 시인 권섭이 탄생한 지 꼭 300년만에 그 유고들을 발견하게 된 것도 실로 우연한 인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자는 그간 각처에 흩어졌던 권섭의 유고들을 찾아 모으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권섭이 일생동안 주거지를 자주 옮긴데다가, 대인관계의 폭이 넓고, 또한 探勝旅行을 즐겼기 때문에 전국 각처의 명승지라고 이를 만났을 곳은 두루 찾아서 여행을 하면서 문필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유고 행방을 찾는 일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쳐

야 했던 것입니다. 유고들을 찾는 동안은, 캄캄한 밤 불빛도 없이 낯선 길을 더듬어서 목적지를 찾아가야 할 때처럼, 막막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후략…)”

“먼 데보다 가까운 데를 알았으면……”

한국문학사에 공백부분이 많은 점이 안타까워 자료 발굴작업의 길로 들어섰다는 박교수는 이 작업이 “한두 사람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고 하는 데까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작업의 고단함을 매우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고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고택들은 완고한 사대부집안이므로 여자의 몸으로 사랑방을 뒤져가며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애를 먹었다고 한다. 주인공 남자가 옛날에 상전이 하인 대할 때 취하는 포츠인 뒷집지는 자제로 박교수가 하는 일을 몰끄러미 쳐다볼 땐 본의아닌 수모감도 느꼈다고 한다. 그런 사대부집안 후예들은 그러나 한번 사귀고 나면 속 깊은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제사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도 한다는 것.

자료의 발굴·소개는 고전문학 연구의 자장을 확장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문학연구의 밑거름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빛을 보기 힘든 작업이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일의 중요성만을 강조할 뿐 실패 나사지 못하는 분야이다. 풍토에서 비포장도로를 몇날 몇밤 걸어야 하는 것과 같은 힘든 외길을 걸어온 박교수는 그런 점에서 많은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정년퇴임하고 1982년에 직접 주춧돌을 놓았다는 한남대학교 박물관 관장으로 있는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먼 데 보다 가까운 데를 알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것.

— 김중식 기자